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월급에 퇴직금도 들어 있었다는 회사,
지급한 돈의 성격부터 다투다.

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전부 인용

두 근로자 합계 79,032,554원 및 지연손해금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임금
원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 1 -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3,399원, 원고에게 43,999,1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고, 원고는 2012. 5. 2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임금 5,544,628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313,200원과 퇴직금 26,175,571원 합계 35,033,3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임금 18,891,285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235,040원과 퇴직금 21,872,830원 합계 43,999,1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의 실경영자는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들은 퇴직 뒤 임금과 수당, 퇴직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회사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 항목의 명칭과 실제 정산 근거를 구분해 두 근로자의 금전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일한 뒤 받아야 할 돈이 여러 명목의 공제 주장에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뿐 아니라, 회사가 공제하겠다는 금액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쟁점은 회사가 과거에 지급한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었는지였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정 내용과 임금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보험료 대납 주장도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의 핵심

다 줬다는 회사의 설명, 항목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줬다는 회사의 설명, 항목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 해울은 약 7,903만 원 전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면?
- 보험료를 이유로 퇴직 정산금을 깎으려 한다면?
- 급여와 수당의 미지급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의 대응

법무법인 해울은 두 근로자를 대리하여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과 미지급 항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하고, 회사가 내세운 퇴직금 분할 지급 및 보험료 공제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했다는 돈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 대납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청구액을 줄이려는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것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두 의뢰인에게 각각 **35,033,399원과 43,999,155원**, 합계 **79,032,5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밀린 급여뿐 아니라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함께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했다거나 대신 부담한 비용이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약정과 지급 내역을 나누어 확인한 과정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결과의 핵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 해울은 약 7,903만 원 전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 해울은 약 7,903만 원 전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 보험료를 대신 냈다면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 급여명세서와 실제 임금액을 맞춰봐야 한다면?
- 동료와 함께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